

#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히브리파, 헬라파와 초기 기독교의 기원

-종교 사학과와 마르틴 헝겔의 초기 분파 이론 재고-<sup>1)</sup>

이상일\*

## 1. ‘헤브라이오이’(Ἑβραῖοι)와 ‘헬레니스타이’(Ἑλληνισταί)에 대한 전통적 해석과 초기 분파 이론 개괄

초기 분파 이론은 페르디난트 바우르(Ferdinand Baur)가 체계적으로 제기한 이론<sup>2)</sup>으로, ‘헤브라이오이’(Ἑβραῖοι)를 아람어를 말하는 유대-

---

\* 총신대 신대원 강사, 신약학

- 1) 본 논문은 필자가 제임스 던 교수(Prof. James Dunn)와 로런 슈튜켄브루크 교수(Prof. Loren Stuckenbruck)의 지도로 영국 더럼 대학교 (University of Durham)에 제출한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 중 5장을 중심으로 편집했다. 박사 학위 논문은 BZNW의 총서 중 하나로 출판될 예정으로, 제목은 *The Origins of Jesus and Gospel Traditions: Interdirectionality of Transmission of Jesus and Gospel Traditions in Bilingual Contexts*, BZNW (Berlin/New York: de Gruyter, forthcoming)이다. 이 논문은 “Bilingualism of the Hebrews and the Hellenists in the Jerusalem Church”로 2006년에 영국 셰필드대학교에서 열렸던 제25차 BNTC(British New Testament Conference) Annual Meeting의 “Short Paper Section”에서 발표했고,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이중 언어-예수 전승의 전달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2010년 3월에 한국신학정보연구원과 대한성서공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발표했고, 같은 해 6월에 신한포중앙교회에서 열린 한국성경신학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했다. 참석했던 교수님들이 하신 귀중한 제안들과 격려에 감사한다. 또한 논문 중에서 § 3.1.과 § 3.2.의 경우, 이상일, “예수 전승과 복음서 전승의 이중 언어적 전달-1세기 팔레스타인과 안디옥의 경우,” 「신약논단」 17:2 (2010), 257-294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지만, 논의의 흐름을 위하여 본고에서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팔레스타인 기독교인으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헬레니스타이’(Ἑλληνισταί)를 디아스포라에서 온 유대인들로, 신학적으로는 자유로운 성향을 갖고 있었고 헬라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했다. 그 ‘헬레니스타이’는 아람어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따로 모여 예배를 드렸다. 헬라어를 말하는 ‘헬레니스타이’의 대표는 ‘헤파타’(ἑπτα, 일곱)이었지만, 아람어를 말하는 ‘헤브라이오이’의 대표는 열두 사도였다. 사도행전 11:19-20에 보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자, ‘헬레니스타이’는 흩어져서 베니게(Phoenicia), 구브로(Cyprus), 안디옥(Antioch)까지 이르게 되고, 헬레니즘과 이방 종교가 혼합된 안디옥에서 헬라어를 말하는 이방인 기독교가 형성되었다. 바울의 신학적인 전통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안디옥 교회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내에 언어적, 신학적 성향이 다른 두 분파가 있었고, 그 분파에서 이방인 기독교가 시작되었다고 초기 분파 이론(early schism theory)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제안한다. 전통적인 종교 사학과와 마르틴 행엘을 포함하는 신 종교 사학과는<sup>3)</sup> 예수의 종교와 바울의 종교, 베드로의 기독교와 바울의 기독교, 유대-팔레스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차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헬레니스타이’의 초기 분파에서 시작했다고 기독교의 기원을 설명한다.

바우르(T. C. Baur)가 초기 분파 이론을 제기한 이래로, ‘헤브라이오이’와 ‘헬레니스타이’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다. 그동안 학자들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두 용어를 구별했다. 즉, 언어 측면에서 보면 아람어 유대인과 헬라어 유대인을 가리키고 지리적으로 구분할 때 팔레스타인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가리킨다. 신학적

2) F. C. Baur, *Paul, the Apostle of Jesus Christ, His Life and Work, His Epistles and Doctrine: A Contribution to a Critical History of Primitive Christianity 2* (London: Williams & Norgate, 1873), 38-60.

3) 전통적인 종교 사학과와 신종교 사학과는 같은 점과 다른 점은 Dieter Zeller, “New Testament Christology in its Hellenistic Reception,” *NTS* 46 (2001), 312-333을 참조하라.

으로 구분하면 보수적 유대인과 진보적 유대인을 가리킨다. 인종적으로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킨다.<sup>4)</sup>

그 두 용어가 인종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며, 언어, 지리적 구분을 했다는 데 현재 학자들이 어느 정도 동의한다. 즉, ‘헤브라이오이’는 아람어를 말하는 팔레스타인 유대인을 가리키며, ‘헬레니스타이’는 헬라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가리킨다. 본 논문은 바우르의 적통이라 할 수 있는 종교 사학과와 견해를 먼저 간단히 소개하고, 전통적인 종교 사학과의 엄격한 신학적, 언어적, 지리적 구분을 비판하고 바우르의 초기 분리 이론을 발전시킨 신종교 사학과와 대표인 마르틴 행엘(Martin Hengel)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행엘이 바우르 이후로 그 주제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를 계속 했기 때문이다.<sup>5)</sup>

바우르의 입장을 기초로 종교 사학과는 그 이론을 좀 더 발전시킨다.<sup>6)</sup> 특히,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은 예수와 바울, 팔레스타인

4) 이 논쟁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Martin Hengel, *Between Jesus and Paul: Studies in the Earliest History of Christianity* (London: SCM, 1983), 1-11; Craig Hill, *Hellenists and Hebrews: Reappraising Division Within the Earliest Church* (Minneapolis: Fortress, 1992), 5-17; Todd Penner, *In Praise of Christian Origins: Stephen and the Hellenists in Lukan Apologetic Historiography*, ESEC 10 (London: T&T Clark, 2004), 65-72를 보라. Alexander Roberts, *Greek the Language of Christ and his Apostles* (London: Longmans, 1888), 187-189, 각주 1에서 두 그룹의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전 논의들을 자세히 요약한다.

5) Craig Hill, *Hellenists and Hebrews: Reappraising Division Within the Earliest Church*, 15에서 힐(Hill)은 바우르의 견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는 행엘이라고 지적한다. 토드 페너(Todd Penner)는 *In Praise of Christian Origins: Stephen and the Hellenists in Lukan Apologetic Historiography*, 23에서 바우르에서 출발한 이 이론이 정점에 달한 것은 행엘이라고 한다. 실제로 Martin Hengel, “Eye-witness Memory and the Writing of the Gospels: Form Criticism, Community Tradition and the Authority of the Authors,” Marcus Bockmuehl and Donald Hagner, eds., *The Written Gosp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83-90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까지도 동일한 의견을 주장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의 다리의 역할을 하는 안디옥 교회에 신약학자들이 주목하라고 촉구한다.<sup>7)</sup> 한 걸음 더 나아가, 볼트만은 초기 기독교 발전에서 시리아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시리아 교회에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초기 기독교의 헬레니즘화는 시리아 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sup>8)</sup> 또한, 마르틴 디벨리우스(Martin Dibelius)도 아람어를 말하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헬라어를 말하는 이방인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 교회에서 예수 전승이 번역되었다고 보았다.<sup>9)</sup> 그런 점에서 예수 전승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전달된 곳, 즉 예수 전승을 번역했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종교 사학파가 초기 기독교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다.

## 2. 마르틴 헝엘의 ‘헤브라이오이’와 ‘헬레니스타이’ 해석과 초기 분파 이론

- 
- 6) 전통적인 종교 사학파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책에서 계속 제기했다. Wilhelm Heitmüller, “Zum Problem Paulus und Jesus,” *ZNW* 13 (1912), 333-334; Wilhelm Bousset, *Die Offenbarung Johannes*, 6th e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0; org. ed. 1906), 119; Martin Dibelius, *Jesu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49), 25; Rudolf Bultmann, *Jesus and the Word* (London: Ivor Nicholson & Watson, 1935), 12-13; Burton Mack, *A Myth of Innocence: Mark and Christian Origins* (Philadelphia: Fortress, 1988), 101-102; Michael Goulder, *St. Paul Versus St. Peter: A Tale of Two Missions* (Louisville, KY: WJK, 1994).
- 7) Rudolf Bultmann, “Die Bedeutung der neuerschlossenen mandäischen und manichäischen Quellen für das Verständnis des Johannesevangeliums,” *ZNW* 24 (1925), 145; E. Dinkler, ed., *Exegetica: Aufsätze zur Erforschung des Neuen Testaments* (Tübingen: Mohr, 1967), 102-103.
- 8) Rudolf Bultmann “Die Bedeutung der neuerschlossenen mandäischen und manichäischen Quellen für das Verständnis des Johannesevangeliums,” 145.
- 9) Martin Dibelius, *From Tradition to Gospel* (London: Ivor Niholson & Watson, 1934), 34; Martin Dibelius, *Jesus*, 25.

마르틴 헝겔은 전통적인 종교 사학과가 제기한 안디옥 번역 가설 (Antioch translation theory)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제기했다. 예수 전승은 안디옥이 아니라, 역사적 예수의 사건들과 시간, 공간적으로 더 가까운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부터 번역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헝겔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다.<sup>10)</sup> 헝겔은 ‘헬레니스타이’와 ‘헵타’(행 6:3에 나오는 일곱)가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예수 전승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여 초기 기독교 형성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sup>11)</sup>

헝겔은 사도행전 6:1-5를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헤브라이오이’와 ‘헬레니스타이’로 주로 이루어졌다고 해석하면서, ‘헤브라이오이’는 아람어를 말하고 헬라어를 조금 할 줄 아는 팔레스타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며, ‘헬레니스타이’는 헬라어만 말하는 헬레니스틱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가리킨다고 제안한다.<sup>12)</sup> 전통적인 종교 사학과를 비판하면서도 헝겔 자신의 엄격한 언어 구분은 자연스럽게 초기 분파 이론을 따라가게 되었다. ‘헬레니스타이’의 단일 언어성(monolinguality)으로 인한 언어적 제약은 아람어로 예배드리는 ‘헤브라이오이’와는 별개로,

10) 페너는 헝겔은 기독교 형성기에서 초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발전을 ‘헬레니스타이’(Ἑλληνισταί)를 강조하여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았다고 평가했다; Todd Penner, *In Praise of Christian Origins: Stephen and the Hellenists in Lukan Apologetic Historiography*, 25-26.

11) Martin Hengel, “Judaism and Hellenism Revisited,” John Collins and Gregory Sterling, eds., *Hellenism in the Land of Israel*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1), 6-37.

12) Martin Hengel, *Between Jesus and Paul: Studies in the Earliest History of Christianity*, 8-11; Martin Hengel, *Earliest Christianity* (London: SCM, 1986), 79; Martin Hengel and Anna Schwemer, *Paul Between Damascus and Antioch: The Unknown Years* (London: SCM, 1997), 32-35; Martin Hengel, *Judaism and Hellenism: Studies in Their Encounter in Palestine During the Early Hellenistic Period* (London: SCM, 1974; org. ed. 1969, German ed.), 104; Martin Hengel, *The ‘Hellenization’ of Judaea in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London: SCM, 1989), 7도 참조하라.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한다.<sup>13)</sup>

행엘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어를 말하는 ‘헬레니스타이’가 포함된 유대 기독교 공동체를 아주 중요하게 보았다. 그곳에서 예수 전승이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 예수 전승의 주요한 부분들, 고난 이야기와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용어들이 번역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sup>14)</sup>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예수 전승은 초기 선교사들인 ‘헬레니스타이’와 ‘헵타’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했다.<sup>15)</sup> 초기 기독교 발전에서 행엘은 ‘헬레니스타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예수와 바울 사이를 연결해주었던 진정한 가교 역할을 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었던 헬라어를 말하던, 스테반 주위에 있던 ‘헬레니스타이’였다.<sup>16)</sup> 왜냐하면 그들이 최초로 헬라어 예수 전승을 전파했고 이방인 기독교가 발생하는 기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헬라어 밖에 할 줄 모르는 ‘헬레니스타이’가 어떻게 아람어 예수 전승을 번역할 수 있었을까? 행엘은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 예수 전승의 번역과 관련하여 이중 언어를<sup>17)</sup> 사용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들에

13) Martin Hengel, *Between Jesus and Paul: Studies in the Earliest History of Christianity*, 14; Martin Hengel, *The Pre-Christian Paul* (London: SCM, 1991), 56, 68.

14) 행엘[*The ‘Hellenization’ of Judaea in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London: SCM, 1989), 18; *Between Jesus and Paul: Studies in the Earliest History of Christianity*, 26-28]은 초기 기독교 형성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 번역되었다고 제시한다:  $\alpha\beta\beta\alpha$  (transliterated),  $\acute{\alpha}\gamma\alpha\theta\acute{\eta}$ ,  $\acute{\alpha}\pi\acute{o}\sigma\tau\omicron\lambda\omicron\varsigma$ ,  $\acute{\epsilon}\kappa\kappa\lambda\eta\sigma\iota\acute{\alpha}$ ,  $\acute{\epsilon}\lambda\pi\acute{\iota}\varsigma$ ,  $\epsilon\upsilon\acute{\alpha}\gamma\gamma\acute{\epsilon}\lambda\iota\omicron\nu$ ,  $\kappa\omicron\iota\nu\omega\nu\acute{\iota}\alpha$ ,  $\pi\alpha\rho\upsilon\sigma\iota\acute{\alpha}$ ,  $\pi\alpha\rho\rho\eta\sigma\iota\acute{\alpha}$ ,  $\pi\iota\sigma\tau\epsilon\acute{\upsilon}\epsilon\iota\nu$ ,  $\pi\acute{\iota}\sigma\tau\iota\varsigma$ ,  $\chi\acute{\alpha}\rho\iota\varsigma$ ,  $\chi\acute{\alpha}\rho\iota\sigma\mu\alpha$ ,  $\acute{o}$   $\nu\iota\delta\acute{o}\varsigma$   $\tau\omicron\upsilon$   $\acute{\alpha}\nu\theta\rho\acute{\omega}\pi\omicron\upsilon$ ,  $\acute{\eta}$   $\beta\alpha\sigma\iota\lambda\epsilon\iota\acute{\alpha}$   $\tau\omicron\upsilon$   $\theta\epsilon\omicron\upsilon$  등이 있다.

15) Martin Hengel, *Between Jesus and Paul: Studies in the Earliest History of Christianity*, 26-27.

16) Martin Hengel, *Between Jesus and Paul: Studies in the Earliest History of Christianity*, 29.

17) 둘 이상의 언어가 같은 지역에서 사용되는 것을 이중 언어라고 한다. 어원적으로 이중 언어(bilingualism)는 두 언어를 가리키지만, 일반적인 정의는 둘 이상의 언어를 가리킨다. 또한 엄밀하게 말하자면, 주 후 1세기 유대-팔레스타인의 언어 상황

게 눈을 돌린다.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 예수 전승을 번역하여 ‘헬레니스타이’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sup>18)</sup> 행엘은 이 이중 언어 사용자들을 이중 언어를 하는 팔레스타인 헬라인들(Bilingual Palestinian Greeks)이라고 불렀다.<sup>19)</sup> 행엘은 예수 전승의 번역을 담당한 이중 언어 사용자들을 나열한다. 예를 들면, 마리아와 요한 마가(행 12:12, 25; 13:5, 13; 15:37), 실라(행 15:22, 27, 32; 살전 1:1, 고후 1:19), 유다 바사바(행 15:22, 32), 므나헴(행 13:1), 마태, 베드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그들의 가족들이 팔레스타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상당 기간을 팔레스타인에서 살았던 사람들(구레네 사람 야손, 구레네 사람 요셉 바나바), 요한 마가의 사촌, 다소 사람 바울, 요안나(눅 8:3), 세리들(예를 들면, 삭개오, 눅 19:2), 니고테모(요 3:1), 아리마대 요셉(마 27:57)이 있다.<sup>20)</sup> 이들은 예수 전승을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여 ‘헤브라이오이’와 ‘헬레니스타이’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였다. 행엘은 ‘헬레니스타이’의 헬라어 단일 언어성을 주장하여 헬레니즘 혼합주의에 물든 ‘헬레니스타이’가 예수 전승을 번역할 때 수동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sup>21)</sup> 그들은 전승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들의 단일 언어적인 제약으로 번역과정에서는 수동적이고 제한적이었다고 한정한다.<sup>22)</sup>

---

을 사중 언어(quadrilingualism) 즉,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가 사용되었다고 해야 하지만, 그 당시에 현저하게 많이 사용되던 언어는 아람어와 헬라어였다는 점에서 이중 언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 18) Martin Hengel, *Between Jesus and Paul: Studies in the Earliest History of Christianity*, 14.  
 19) Martin Hengel, *Between Jesus and Paul: Studies in the Earliest History of Christianity*, 11.  
 20) Martin Hengel, *Judaism and Hellenism: Studies in Their Encounter in Palestine During the Early Hellenistic Period*, 104-105; Martin Hengel, *Between Jesus and Paul: Studies in the Earliest History of Christianity*, 10-11; Martin Hengel, *The ‘Hellenization’ of Judaea in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14-18.  
 21) Martin Hengel, *Between Jesus and Paul: Studies in the Earliest History of Christianity*, 24.  
 22) Martin Hengel, *Between Jesus and Paul: Studies in the Earliest History of Christianity*, 27-29.

행엘은 ‘헵타’는 모두 ‘헬레니스타이’였으며, 헬라어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행엘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1) 그들이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2) ‘헬레니스타이’의 불평의 해결책으로 ‘헬레니스타이’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고, (3) 스테반 순교 이후 흩어졌던 지역이 헬라어가 주로 사용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헬레니스타이’였다고 주장한다.<sup>23)</sup>

많은 학자들은 행엘의 ‘헵타’의 정체성 주장을 비평했지만, 그들의 비평은 단일 언어적 가설 위에서 비판했다. 흥미롭게도, 행엘이 자신의 비평가들의 입장을 재반박할 때, 자신의 비평가들이 예수 전승의 전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이중 언어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sup>24)</sup> 행엘은 헬라-로마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중 언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초기 기독교의 발생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30년 이상 진행해왔다.<sup>25)</sup> 가장 최근에 쓴 논문에서도 행엘은 “우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나 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서 기독교의 시작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이중 언어 사용자였던 유대인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sup>26)</sup>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이중 언어와 이중 언어 사용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행엘의 이중 언어 사용자에 대한 관점은 언어학적으로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다.

---

23) Martin Hengel, *Between Jesus and Paul: Studies in the Earliest History of Christianity*, 12-13; Martin Hengel, “Judaism and Hellenism Revisited,” 28.

24) Martin Hengel, *Between Jesus and Paul: Studies in the Earliest History of Christianity*, 32-37.

25) 다음과 같은 그의 책과 논문을 보라. Martin Hengel, *Judaism and Hellenism: Studies in Their Encounter in Palestine During the Early Hellenistic Period*, 104-105; Martin Hengel, “Judaism and Hellenism Revisited,” 6-37.

26) Martin Hengel, “Judaism and Hellenism Revisited,” 7.

### 3. 이중 언어 사용자인 ‘헤브라이오이’와 ‘헬레니스타이’

행엘은 ‘헬레니스타이’를 가리켜 헬라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으로, ‘헤브라이오이’는 아람어를 말하며 헬라어를 조금 할 줄 아는 팔레스타인 유대인 기독교인으로 생각한다. 즉, 단일 언어, 지리, 인종적 구별이다. 행엘은 이중 언어와 이중 언어 사용자에게 관심이 많지만, 대략 다섯 가지 점에서 그의 논의는 명료하지 못하다. (1)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팔레스타인 헬라인들”을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는다. 그의 구분대로, 마태와 베드로가 과연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팔레스타인 “헬라인”으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2)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 ‘헤브라이오이’와 ‘헬레니스타이’ 둘 중 어느 그룹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가 불확실하다. 아니면, 제3의 그룹인지도 불명확하다. (3)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 ‘헬레니스타이’에 속한다면, 바울과 요셉 바나바를 어떻게 헬라어만 말할 줄 아는 ‘헬레니스타이’로 분류할 수 있겠는가? (4) 만약 이중 언어 사용자를 ‘헤브라이오이’로 분류한다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그들의 가족들이 팔레스타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상당 기간을 팔레스타인에서 살았던 사람들(구레네 사람 야손, 구레네 사람 요셉 바나바)”을 어떻게 ‘헤브라이오이’로 분류할 수 있겠는가? (5) 벧새다 사람 베드로와 구브로 사람 요셉 바나바를 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행엘은 예루살렘은 이중 언어 사용 도시로 보면서도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간주하는 것일까? 행엘 자신의 주장대로 예루살렘을 이중 언어 사용 도시로 보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그 두 용어, ‘헤브라이오이’와 ‘헬레니스타이’가 이중 언어 사용자를 가리키는 단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헤브라이오이’는 아람어를 모 언어로 사용하는 기독교인을 가리키고, ‘헬레니스타이’는 헬라어를 모 언어로 사용하는 기독교인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1. ‘헤브라이오이’는 아람어를 모 언어로 사용하는 기독교인들<sup>27)</sup>

헝겔은 ‘헤브라이오이’를 아람어를 말하고 헬라어를 조금 말하는 팔레스타인 유대인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단일 언어, 지리, 인종적 구분을 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전통적으로 종교 사학과에서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언어 전제와 연관이 있다. (1) 유대교와 관련하여 민족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이방인은 헬라어를 말하는 반면에, 유대인은 아람어를 말한다. (2) 유대교와 관련하여 지역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헬라어를 말하는 반면에, 유대-팔레스타인 유대인은 아람어를 말한다. (3) 기독교를 민족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이방인 기독교인은 헬라어를 말하는 반면에, 유대인 기독교인은 아람어를 말한다. (4) 초기 기독교를 지역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이방 기독교는 헬라어를 말하는 기독교 공동체인 반면에, 팔레스타인 기독교는 아람어를 말하는 기독교 공동체이다.

그러나 최근에 주 전, 후 1세기의 헬레니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한 드로이센(Johann Droysen)이 주창한 융합 모델보다<sup>28)</sup> 공존 모델로 헬레니즘을 설명하려고 한다. 지난 반세기에 추가로 발굴된 여러 고고학적인 자료들은 융합 모델보다는 공존 모델에 근거한 문화의 공존을 지지한다.<sup>29)</sup>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각 지역의 지역어가 헬라어와 같이 공용되고 있었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sup>30)</sup> 즉, 지역 거주민들이

27) § 3.1.은 이상일, “예수 전승과 복음서 전승의 이중 언어적 전달-1세기 팔레스타인과 안디옥의 경우,” 257-294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므로 본고에서는 간단히 요약한다. 필요한 경우, 그대로 인용하였다.

28) 융합으로서의 헬레니즘은 요한 드로이센(Johann Droysen)이 주창한 것으로 헝겔의 정반합의 변증법을 헬레니즘에 적용하여 헬라 문명 + 오리엔탈리즘 = 두 문명의 융합으로 설명했다. Johann Droysen, *Geschichte des Hellenismus* 3 (Hamburg: Gotha, 1836-1843).

29) 대표적 학자는 다음을 참고하라. Naphtali Lewis, *Greeks in Ptolemaic Egypt: Case Studies in the Social History of the Hellenistic World* (Oxford: Clarendon Press, 2001), 4.

지역어를 사용하다가 헬라어가 유입된 후에는 그 지역어와 헬라어를 같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헬라어 단일 언어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주 전, 후 1세기 시리아 지역만 하더라도 헬라어와 같이 지역어들이 일상어로 공용되고 있었다.<sup>31)</sup> 헬라어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던 페니키아와 키프러스에서도

- 
- 30) 언어의 공존 모델을 제안하는 학자들을 간단히 몇 명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Maurice Sartre, *The Middle East Under Rome*, Catherine Porter, Elizabeth Rawlings, and Jeannine Routier-Pucci, trans. (Cambridge: Belknap, 2005), 274-296; James Adams, *Bilingualism and Latin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Kevin Butcher, *Roman Syria and the Near East* (London: The British Museum Press, 2003); James Adams, “Bilingualism at Delos,” James Adams, Mark Janse, and Simon Swain, eds., *Bilingualism in Ancient Society: Language Contact and the Written 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103-127. 방대한 참고도서 목록은 이상일, “예수 전승과 복음서 전승의 이중 언어적 전달-1세기 팔레스타인과 안디옥의 경우,” 261-262, 각주 6을 참조하라.
- 31) Maurice Sartre, *The Middle East Under Rome*, 291-295; Sebastian Brock, “Greek and Syriac in Late Antique Syria,” Alan Bowman and Greg Woolf, eds., *Literacy and Power in the Ancient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149-160; Han Drijvers, *East of Antioch: Studies in Early Syriac Christianity* (London: Variorum, 1984), 124-146; Stewart McCullough, *A Short History of Syriac Christianity to the Rise of Islam* (Chico: Scholars, 1982), 9; Fergus Millar, “Empire, Community and Culture in the Roman Near East: Greeks, Syrians, Jews and Arabs,” *JJS* 38 (1987), 143-164. 로마 시대의 시리아의 이중 언어적 상황은 지역별로 지역어에 따라 차이가 있다. 팔미라(Palmyra)의 경우 헬라어와 지역 아랍어 방언인 팔미라어가 전반적으로 다 사용되었다. Ted Kaizer, *The Religious Life of Palmyra: A Study of the Social Patterns of Worship in the Roman Period*, OeO, SKN4 (Stuttgart: Franz Steiner, 2002), 27-34; Ted Kaizer, “Religious Mentality in Palmyrene Documents,” *Klio* 86:1 (2004), 165-184; Holger Gzella, “Die Palmyrener in der griechisch-römischen Welt: Kulturelle Begegnung im Spiegel des Sprachkontaktes,” *Klio* 87:2 (2005), 445-458; James Adams, *Bilingualism and Latin Language*, 248-264; David Taylor, “Bilingualism and Diglossia in Late Antique Syria and Mesopotamia,” James Adams, Mark Janse, and Simon Swain, eds., *Bilingualism in Ancient Society: Language Contact and the Written 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Fergus Millar, *The Roman Near East 31 BC-AD 337*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233, 319-336, 337, 470; Philip Khuri Hitti, *History of Syria: Including Lebanon and Palestine*,

이중 언어로 된 비문들도 발굴되었다.<sup>32)</sup> 퍼거스 밀러(Fergus Millar)는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 “우리가 ‘아람어’라고 부르는 다양한 셈어 방언들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포함하여 바벨론에서 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다.”고 단호하게 결론 내렸다.<sup>33)</sup>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안디옥도 헬라어 단일 지역으로 오랫동안 분류해왔으나,<sup>34)</sup>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안디옥을 이중 언어

---

(London: Macmillan, 1951), 256. 듀라 유로포스(Dura Europos)의 경우,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유대 아람어, 시리아어, 파르티아어, 팔미라어, 사파이티어, 중부 페르시아어가 발견되었다. Bradford Welles, Robert O. Fink, and J. Frank Gilliam, eds., *The Excavations at Dura-Europos, Conducted by Yale University and the French Academy of Inscriptions and Letters. Final Report V, Part I. The Parchments and Papyri*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9); George Kilpatrick, “Dura-Europos: The Parchments and the Papyri,” *GRBS* 5 (1964), 217; Philip Khuri Hitti, *History of Syria: Including Lebanon and Palestine*, 256. 사모사타의 경우, 아람어와 헬라어가 공용되고 있었음이 확실히 드러난다. David Taylor, “Bilingualism and Diglossia in Late Antique Syria and Mesopotamia,” 305; A. H. M. Jones, *The Greek City from Alexander to Justinian* (Oxford: Clarendon, 1940), 291. 에테사의 수도인 오스르혼(Osrhoene)도 시리아어와 헬라어가 사용되던 이중 언어 사용 지역이었다. Maurice Sartre, *The Middle East Under Rome*, 293; Sebastian Brock, “Greek and Syriac in Late Antique Syria,” 149-160. 페니키아 지역도 헬라어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거주민의 대다수는 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다. Maurice Sartre, *The Middle East Under Rome*, 292-293; M.-F. Baslez, “The Bilingualism of the Phoenicians in the Ancient Greek World,” A.-F. Christidis, ed., *A History of Ancient Greek: From the Beginnings to Late Antiqu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911-923. 나바티아의 경우, 주 전 4세기 말부터 주 후 4세기까지 나바티아어와 헬라어가 사용되었다. Fergus Millar, “Empire, Community and Culture in the Roman Near East: Greeks, Syrians, Jews and Arabs,” *JJS* 38 (1987), 152-155; Alexander Grushevoi, “The Tribe ‘Ubaishat in Safaitic Nabataean and Greek Inscriptions,” *BAS* 33 (1985), 51-54.

32) Green Peter, *Alexander to Actium: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 Hellenistic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313; Fergus Millar, “Paul of Samosata, Zenobia, and Aurelian: The Church, Local Culture, and Political Allegiance,” *JRS* 61 (1971), 10-17 참조.

33) Fergus Millar, “Empire, Community and Culture in the Roman Near East: Greeks, Syrians, Jews and Arabs,” 144.

사용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sup>35)</sup> 사회 집단으로 설명하면, 상위 집단에 속하는 시리아인들도 헬라어뿐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했다.<sup>36)</sup> 하위 집단에 속하는 시리아인들도 시리아 아람어와 헬라어를 물론 말했다.<sup>37)</sup> 심지어 4세기까지 아람어를 안디옥의 시골 지방에서 계속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sup>38)</sup> 안디옥에서는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까지 주 후 1세기 경에 시리아 아람어와 헬라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상위 계층의 안디옥 사람들은 주로 헬라어를 모(母) 언어로, 시리아 아람어를 간(間) 언어(embedded language)로 사용했으며, 하위 계층의 안디옥 사람들은 주로 시리아 아람어를 모 언어로 헬라어를 간 언어로 사용했을 것이다.<sup>39)</sup> 주 후 1세기경에 상위 그룹이 전체 인구

34) 예를 들어, Jerome Crowe, *From Jerusalem to Antioch: the Gospel across Culture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7), xiii에서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헬라어를 말했다고 하였다.

35) Peter Green, *Alexander the Actium: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 Hellenistic Age*, 313. 자세한 참고 도서 목록은 이상일, “예수 전승과 복음서 전승의 이중 언어적 전달-1세기 팔레스타인과 안디옥의 경우,” 268, 각주 23을 참조하라.

36) David Taylor, “Bilingualism and Diglossia in Late Antique Syria and Mesopotamia,” James Adams, Mark Janse, and Simon Swain, eds., *Bilingualism in Ancient Society: Language Contact and the Written 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314-315.

37) David Taylor, “Bilingualism and Diglossia in Late Antique Syria and Mesopotamia,” 305.

38) 크리소스톰(*Cat. ill.* 8.2, 4)은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람어를 쓴다고 해서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라고 하였다.

39) 사회언어학적인 용어로, “아람어를 말하는 사람(Aramaic-speaker)”은 아람어만 말하는 사람을 말하고, “아람어를 모 언어(母 言語)로 말하는 사람(Aramaic-matrix speaker)”은 아람어를 모 언어로 말하고, 다른 언어도 간 언어(間 言語)로 말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중 언어 사용자(bilingual)란, 광의적 의미로는 다른 언어를 몇 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연구의 의미가 없다. 협의적 의미로는 두 언어를 토박이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역시 연구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균형잡힌 정의로는 A. R. Diebold, “Incipient Bilingualism,” *Language* 37 (1961), 99의 정의가 널리 알려져 있다. 즉, 둘 이상의 언어를 상황에

의 10% 정도에 해당한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안디옥의 언어 상황은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중 언어 사용 지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안디옥과 관련해서 볼 때, 모든 이방인 기독교인이거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헬라어를 말했다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근거가 별로 없다. 오히려, 아람어가 지역어인 로마 제국의 지역들의 경우, 상위 집단을 제외한 대다수(80-90%)의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 언어는 아람어였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헤브라이오이’는 단일 언어적, 지리적, 인종적 구별과 상관없이 이중 언어적 구별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즉, 아람어를 말하는 팔레스타인 유대인 기독교인(Aramaic-speaking Jewish Palestinian Christian)보다는 팔레스타인 안이든 밖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람어를 모 언어로 하는 기독교인(Aramaic-matrix Christian)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팔레스타인 밖의 유대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특히, 안디옥)들 가운데도 아람어 사용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9-11의 언어 목록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계속 사용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요세푸스는 *Bellum Judaicum*의 서론(1.3-6)에서 “원래 이 책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하여 아람어로 기록했다.”고 밝힌다. 요세푸스가 제시하는 아람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던 지역 목록은 사도행전 2:9-11에서 제시하는 목록과 비교해 볼 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 온 사람들과 그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sup>40)</sup>詹스는 그 언어

---

따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이중 언어 사용자라고 부른다.

40) Mark Janse, “Aspects of Bilingualism in the History of the Greek,” James Adams, Mark Janse, and Simon Swain, eds., *Bilingualism in Ancient Society: Language Contact and the Written 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357에서 소아시아의 동부 지역에는 많은 지역어들이 헬라어와 공용되었다고 설명한다. Fergus Millar,

목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역들은 주 후 1세기에 아람어와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사용 지역이었다고 설명한다.<sup>41)</sup> 따라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중 언어 사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며 게다가 아람어가 지역어로 사용되던 곳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의 모 언어가 아람어이고 간 언어는 헬라어이거나(주로, 하위 그룹), 모 언어가 헬라어이고 간 언어는 아람어(주로, 상위 그룹)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유대-팔레스타인 기독교인은 아님을 말해준다. 아람어를 말하는 팔레스타인 밖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방인도 ‘헤브라이오이’에 포함시켜야 함을 말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이중 언어 사용자였다.

### 3.2. ‘헬레니스타이’는 헬라어를 모 언어로 사용하는 기독교인들<sup>42)</sup>

행엘은 사도행전 6:1의 ‘헬레니스타이’를 헬라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간주했다. 이것도 단일 언어적, 지리적, 민족적 구분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 후 1세기 로마 제국의 언어적 상황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이중 언어 사용 지역이었다. 공통 언어로 헬라어가 사용되고, 그 지역의 지역어가 같이 사용되었다. 유대-팔레스타인도 이중 언어 사용 지역이었다. 아람어가 대다수의 모 언어였지만 헬라어가 모 언어인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중

---

*The Roman Near East 31 BC-AD 337*, 503-504와 F. F. Bruce,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Acts*, NLCNT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65), 61-62에서 브루스는 겹쳐진 지역들이 아람어와 헬라어 공용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한다. 갑바도기아에는 여러 언어가 사용되었다. Mark Janse, “Aspects of Bilingualism in the History of the Greek,” 347-349를 보라. 이탤릭으로 된 부분은 요세푸스가 말하는 아람어 사용 지역이다.

41) Mark Janse, “Aspects of Bilingualism in the History of the Greek,” 349.

42) § 3.2.는 이상일, “예수 전승과 복음서 전승의 이중 언어적 전달-1세기 팔레스타인과 안디옥의 경우,” 257-294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므로 본고에서는 간단히 요약 하겠다.

언어 사용 지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헬레니스타이’는 팔레스타인 안이든 밖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어를 모 언어로 사용하는 기독교인(Greek-matrix Christian)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종교 사학파의 안디옥 가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안디옥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언어는 중요하다. 안디옥의 많은 유대인들은 이중 언어 사용자였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디옥의 언어 상황 자체가 이중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도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 많았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아람어를 계속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1) 유대-팔레스타인에서 안디옥으로 팔레스타인 아람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었다. (2)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계속 교류했다. 지속적인 교류는 언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3)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 장기간 머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배우거나 다시 배우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팔레스타인 아람어와 헬라어나 팔레스타인 아람어와 시리아 아람어를 말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들, 세 언어를 다 잘 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안디옥에 살았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언어 상황은 어땠을까? 셀수스(Celsus, *C. Cels.* 3.44; 고전 1:26-31 참조)는 하층민들이 주로 기독교인들이 된다고 경멸하는 어조로 말했다.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의 제안대로, 분명히 상위 계층에 속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겠지만,<sup>43)</sup> 안디옥 기독교인들은 하층민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학적 분류는 안디옥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시리아 아람어나 팔레스타인 아람어를 모 언어로 사용하고, 헬

---

43) 스타크(Rodney Stark)는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는 많은 수의 상위 계층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Rodney Stark, *The Rise of Christianity: A Sociologist Reconsiders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33.

라어를 간 언어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상황은 대다수가 시리아 아람어나 팔레스타인 아람어를 모 언어로 사용하고, 헬라어를 간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안디옥의 경우, 모든 이방인 기독교인이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헬라어를 말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아람어가 지역어인 로마 제국의 지역들의 경우, 상위 집단을 제외한 대다수(80-90%)의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 언어는 아람어였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경우도 주 후 1세기 팔레스타인의 경우, 로마 제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헬라어가 도시와 시골 모든 지역에서, 모든 계층에서 사용되었다.<sup>44)</sup> 주 후 1세기경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람어와 헬라어의 이중 언어였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증거로 드러난다. 첫째, 비명(碑銘)이다. 50% 이상의 비명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도시와 시골에서 발견된 파피루스도 이중 언어로 되어 있었다. 세 번째는 언어 지리학적인 증거이다. 유대-팔레스타인에 명백하게 헬라화한 도시가 전체에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팔레스타인에 사는 거주민들이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을 항상 접촉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주 후 1세기 유대-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이든 도시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상위 그룹이든 하위 그룹이든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유대-팔레스타인 전역에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유대인 이터라도 헬라어를 모 언어로 하고 아람어를 간 언어로 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한 기독교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44) 이상일, “예수 전승과 복음서 전승의 이중 언어적 전달-1세기 팔레스타인과 안디옥의 경우,” 273-283에서 1세기 팔레스타인의 이중 언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유대인이더라도 ‘헬레니스타이’로 분류해야 한다. 그래서 ‘헬레니스타이’를 이방인 기독교이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언어학적인 근거가 약하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6:1-5에 나오는 두 용어, ‘헤브라이오이’와 ‘헬레니스타이’가 가리키는 것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종교 사학과와 행엘을 중심으로 한 신 종교 사학과에서는 단일 언어적, 지리적, 인종적 구분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이중 언어 사용 환경을 고려해볼 때, 그 두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즉, ‘헤브라이오이’는 아람어를 모 언어로 하는 기독교인을 가리키고, ‘헬레니스타이’는 헬라어를 모 언어로 하는 기독교인을 가리킨다.

#### 4. 이중 언어 사용자인 ‘헤파타’

행엘은 ‘헤파타’(일곱)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헬레니스타이’에 속하며 헬라어만 했다고 생각했다. 헬라어식 이름과 무시된 ‘헬레니스타이’에 대한 해결책과 헬라 지역에서 ‘헤파타’가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그의 세 가지 단일 언어를 사용했다는 주장보다 이중 언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 4.1. 비문의 이름들

헬라식의 이름 자체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조셉 피츠마이어(Joseph Fitzmyer)는 일곱이 모두 전형적인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이름이 그들의 정체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sup>45)</sup> 예수의 제자만 하더라도 헬라식 이름이

45) Joseph Fitzmyer, *The Acts of the Apostl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1 (New York: Doubleday, 1998), 350; C. Kingley Barrett, *The*

있었다. 게다가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아람어식의 이름을 짓기도 했다.<sup>46)</sup> 따라서 이름만으로 정체성을 알 수는 없다.

## 4.2. 지리적 증거

그 ‘헤파타’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지명에는 (1) 가이사라 마리티마, (2) 사마리아, (3) 에디오피아, (4) 안디옥이 있다.

### 4.2.1. 가이사라 마리티마

사도행전 8:40을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난 후에 가이사라로 갔고, 바울이 방문할 때에도 빌립이 거기 있었다(행 21:8). 가이사라의 언어적 상황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빌립이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sup>47)</sup>

그러나 가이사라는 이중 언어 사용 도시였다. 가이사라에는 이중 언어로 된 비문이 많이 발견되었다.<sup>48)</sup> 예루살렘 탈무드(*Sota*. 7.1.21b)는

---

*Acts of the Apostles*, ICC (Edinburgh: T&T Clark, 1994-1998), 314.

46) Kevin Butcher, *Roman Syria and the Near East*, 284.

47) 대표적인 학자는 다음을 보라. Granville Downey, “Caesarea and the Christian Church,” Charles Fritsch, ed., *Studies in the History of Caesarea Maritima*, BASORSup 19 (Missoula: Scholars, 1975), 23.

48) Pieter van der Horst, “Greek in Jewish Palestine in Light of Jewish Epigraphy,” John Collins and Gregory Sterling, eds., *Hellenism in the Land of Israel*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1), 161; Lee Levine, *Judaism and Hellenism in Antiquity: Conflict or Confluence?*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8), 160-161; Lee Levine, *Caesarea under Roman Rule* (Leiden: Brill, 1975), 15-33; Martin Hengel, *Between Jesus and Paul: Studies in the Earliest History of Christianity*, 110-115; Fergus Millar, *The Roman Near East 31 BC-AD 337*, 377-378; Bernard Spolsky, “Triglossia and Literacy in Jewish Palestine of the First Century,” *IJSL* 42 (1983), 99; Saul Liebermann, *Greek in Jewish Palestine:*

랍비 레위(Levi)가 헬라어로 쉼마를 읽는 소리를 듣고 아람어가 아니어서 놀랐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그 지역에서는 아람어나 히브리어가 들려야 하는데 헬라어가 들렸다는 뜻이므로 지역 사람들이 아람어를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요세푸스(*Ant.* 20.175; *Bell.* 2.268, 2.287)는 시리아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부유했다고 말한다. 이 말은 당시 그 지역에 습득 이중 언어 사용자인 유대인들이 많았음을 암시한다. 사회 언어학적으로 설명하면, 가이사라 유대인들의 하위 그룹은 아람어를 모 언어로 했을 것이고, 상위 그룹은 헬라어를 모 언어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이사라가 이중 언어 사용 지역이었고, 유대인들도 이중 언어 사용자가 많았기 때문에 가이사라 지역을 빌립이 헬라어를 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힘들다.

#### 4.2.2. 사마리아

사도행전 8:5-13은 빌립이 사마리아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을 행했다고 기록한다. 주 후 1세기 사마리아의 언어 상황도 주 후 1세기 유대 지역의 언어 상황과 비슷했다. 유대에 비해서 좀 더 헬라화 되기는 했으나, 헬라어와 사마리아 아람어가 공용되었다.<sup>49)</sup>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과 빌립의 언어는 직접 연관이 없다.

#### 4.2.3. 에디오피아

사도행전 8장 26-39절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를 전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두 사람은 헬라어로 대화했고 빌립은 헬라어를 했다고 주장한다. 디 오코너(D. O'Connor)는 에디오피아의

---

*Studies in the Life and Manners of Jewish Palestine in the II-IV Centuries C.E.*, 2nd ed. (New York: Philipp Feldheim, 1965; org. ed. 1942), 29-67.

49) Martin Hengel, *The 'Hellenization' of Judaea in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8.

언어 상황과 관련하여 아직 중요한 지역이 발굴되지 않았으므로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sup>50)</sup> 그 관리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열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보인다. 이 관리가 적어도 에디오피아의 유대인(팔라사)들을 만난 것으로 보이며 이사야서를 읽을 정도의 히브리어를 배웠을 수도 있다. 물론 그는 지역어인 메퇴어와 공통언어인 헬라어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자료가 빌립이 헬라어만 했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 4.3. 역할 수행

바우르와는 달리, 찰스 무울(Charles Moule)은 사도행전 6:1의 그 두 용어가 언어만 구분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헤브라이오이’는 아람어를 하면서 헬라어를 조금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고, ‘헬레니스타이’는 헬라어만 하는 유대인이라고 구분했다. 그리고 ‘헵타’ 모두 헬라어만 했지만 ‘헤브라이오이’ 과부들도 잘 배려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sup>51)</sup> 행엘은 무울의 언어 구분만 받아들이면서 바우르의 초기 분파 이론을 지지한다. 행엘은 ‘헬레니스타이’는 언어 차이로 아람어를 몰랐기 때문에 예배를 따로 드렸다고 주장했다.<sup>52)</sup> 행엘은 ‘헵타’를 초대 예루살렘 기독교 전체의 지도자가 아니라, ‘헬레니스타이’ 그룹만의 지도자들이며 열 두 사도의 권위 아래 복종했다고 생각했다.<sup>53)</sup>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행엘이 너무 ‘헬레니스타이’에만 치중한다고 비평한다. 로버트 머레이(Robert Murray)는 ‘헵타’는 두 집단의 대표자

50) D. O'Connor, *Ancient Nubia: Egypt's Rival in Africa* (Philadelphia: The University of Museum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72.

51) C. F. D. Moule, "Once More, Who Were the Hellenists?" *ExpTim* 60 (1958-1959), 100-102.

52) Martin Hengel, *Between Jesus and Paul: Studies in the Earliest History of Christianity*, 14-15; Martin Hengel, *The Pre-Christian Paul*, 56, 68.

53) Martin Hengel, *Between Jesus and Paul: Studies in the Earliest History of Christianity*, 14-15; Martin Hengel, *Earliest Christianity*, 78.

들로 선택되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sup>54)</sup> 요하네스 뭉크(Johannes Munck)도 행엘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헤브라이오이’의 불평이 다시 제기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헵타’는 ‘헤브라이오이’와 ‘헬레니스타이’의 두 그룹의 대표였을 것이라고 한다.<sup>55)</sup> 또한 스테반과 빌립은 ‘헤브라이오이’에 속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다. 오래전에 요한 뵙겔(Johann Bengel)도 ‘헵타’는 양 집단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sup>56)</sup>

그러나 바우르와 행엘의 입장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두 진영의 학자들은 단일 언어를 사용했다는 가정 아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말했고 팔레스타인 유대인은 아람어를 말했다고 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아주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모 언어로 말했으며,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모 언어로 말했으므로 그 두 용어가 단일 언어적이거나 지리, 민족적으로 구분한 것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이중 언어 사용 교회였다.<sup>57)</sup> 이중 언어 사용 공동체는 그들의 지도자를 세울 때 이중 언어 지도자들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헵타’도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선택되었다면 이중 언어 사용자였을 것이다. 사도행전 6:3은 그들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좋은 평판(μαρτυρούμενοι), 둘째, 성령 충만(πλήρεις πνεύματος), 셋째, 지혜(σοφία)이다.

54) R. Murray, “Jews, Hebrews, and Christians: Some Needed Distinctions,” *NovT* 24 (1982), 204.

55) Johannes Munck, *The Acts of the Apostles*, AB 31 (New York: Doubleday, 1967), 57.

56) Johann Bengel, *Gnomon of the New Testament* 5 (Edinburgh: T&T Clark, 1859; org. ed. 1759. German ed.), 2, 566.

57) 모든 이중 언어 사용 공동체는 거의 균형 이중 언어 사용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양 극단의 그 사이에 연속적으로 정도가 다른 이중 언어 사용자가 있으며 한 언어만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먼저, 성령 충만과 지혜는 누가복음 21:15에서 약속한 다음과 같은 예수의 말씀을 연상시킨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재<sup>58)</sup>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지혜는 누가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누가행전에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9번 나오는데, 예수(눅 2:40, 52), 솔로몬(눅 11:31), 열두 제자(눅 21:15), ‘헵타’(행 6:3), 스테반(행 6:10), 요셉(행 7:10), 모세(행 7:22)다.<sup>59)</sup> 신약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 계보는 예수-열두 제자-‘헵타’(일곱)로 이어진다. 게다가 누가복음 21:15의 지혜가 공관복음서의 다른 병행구절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마 10:17-20 또는 막 13:11). 이러한 사실도 누가가 지혜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사도행전 6:10을 보면 예수가 열두 제자에게 약속한 것이 ‘헵타’(일곱)에게서 성취된다.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sup>60)</sup> 피츠마이어는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다고 강조한다.<sup>61)</sup> 누가는 ‘헵타’(일곱)이 예수와 열두 제자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예수의 열두 제자에게 했던 약속이 ‘헵타’(일곱)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본다.

둘째, 누가는 ‘도데카’(δωδεκα, 행 6:2)와 ‘헵타’(행 6:3)를 병치시킨다. 숫자 병치는 그가 사용한 자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sup>62)</sup> ‘헵타’를

58) Alfred Plummer, *The Gospel According to S. Luke*, ICC, 5th ed. (Edinburgh: T&T Clark, 1922), 479는 “입”을 “말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59) 누가복음 7:35의 경우 지시하는 사람이 불명확하나 예수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60) C. Kingley Barrett, *The Acts of the Apostles*, 325; Joseph Fitzmyer, *The Acts of the Apostl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358; Hans Conzelmann, *Acts of the Apostles: A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1987), 47; Ernst Haenchen, *The Acts of the Apostles* (Oxford: Basil Blackwell, 1971), 271.

61) Joseph Fitzmyer, *The Acts of the Apostl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358.

62) C. Kingley Barrett, *The Acts of the Apostles*, 311; Hans Conzelmann, *Acts of the Apostles: A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44; F. F. Bruce, *Paul: Apostle of the Free Spirit* (Exeter: Paternoster, 1979), 50.

사용하기 위하여 ‘도데카’를 의도적으로 쓴 문학적인 장치로 보인다.

누가는 열둘과 일곱이 연장선상에 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다른 표현 대신 숫자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예수께서 “열둘”을 부르셨다(눅 6:13). “일곱”이 대표로 세워진다(행 6:3). 마르셀 사이먼(Marcel Simon)은 “일곱”이라는 숫자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유대인 공동체에서 아주 익숙한 숫자였다고 지적한다.<sup>63)</sup> 유대인들 “일곱”을 뽑아서 어떤 임무를 맡기는 관습이 있었다.<sup>64)</sup> 새라 퍼스(Sarah Pearce)는 요세푸스의 *Ant.* 4.214에서 주 후 1세기 갈릴리의 “일곱” 명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인용하면서 초대 교회의 ‘헵타’(일곱) 이 새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주장한다.<sup>65)</sup> 열둘이 열두 지파를 대표하듯이, 일곱이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대표한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처음 임명될 때 숫자를 병행하여 ‘헵타’가 ‘도데카’를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제시한다.

셋째, 예수는 ‘도데카’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한 선교를 명령했다. 그러나 ‘헵타’가 그 일을 함께 성취한다. 하워드 마샬(Howard Marshall)은 누가는 형식적으로는 ‘헵타’의 임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지만,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요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고 지적한다.<sup>66)</sup> 사도행전 21:8에서도 언급하듯이, 그들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었다.<sup>67)</sup> 사도행전 1:8에서 예수는 제자들

63) Marcel Simon, *St Stephen and the Hellenists in the Primitive Church* (London: Longmans, 1958), 118, 각주 13.

64) 예를 들어, 요세푸스의 언급은 *Ant.* 4.214; *Bell.* 2.571; *Ant.* 4.287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렛(C. Kingley Barrett)은 *Megillab* 26a와 *Megillab* 3.74a.16에서 ‘일곱’을 언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C. Kingley Barrett, *The Acts of the Apostles*, 312; Ernst Haencheon, *The Acts of the Apostles*, 263도 참조하라.

65) Sarah Pearce, “Flavius Josephus as Interpreter of Biblical Law: The Council of Seven and the Levitical Servants in Jewish Antiquities 4.214,” *HeyJ* 36 (1995), 477-492; 특히, 481-484.

66) Howard Marshall, *The Acts of the Apostles*, TNTC (Grand Rapids: Eerdmans, 1980), 125.

67) Joseph Fitzmyer, *The Acts of the Apostl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한다. 누가는 예수가 열두 제자들에게 명령한 선교 사명을 ‘헵타’가 수행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기록한다. 첫째, 일곱은 성령이 충만하였다(행 6:3, 10). 둘째, 예루살렘에서의 스테반이 선교하고 있다(6:8-7:60). 셋째,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선교하고 있다(8:1-25). 넷째, 빌립이 땅끝에서 온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선교하고 있다(8:26-39). 에디오피아는 그 당시에 남쪽 땅끝으로 알려져 있었다.<sup>68)</sup> 예수의 선교 명령은 ‘헵타’(일곱)가 수행하고 땅끝까지 전파했다.<sup>69)</sup>

이중 언어 사용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중 언어 사용자가 필요했다. ‘헵타’는 아람어나 헬라어를 모언어로 하고 다른 언어를 간언어로 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로서 예수와 열두 제자를 계승하여 예루살렘 초대 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다. 따라서 이중 언어 사용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역할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이중 언어 사용자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일 언어적 근거 위에서 종교 사학과와 행엘은 ‘헵타’가 헬라파 유대인으로 헬라어만 말할 수 있었으며, 헬라파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람어를 말하는 유대 기독교인들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고, 이방인 선교를 주도하였고, 바울의 기독교의 기원이 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그러나 주 전, 후 1세기 로마 시대의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디아스포라 지역의 언어 상황이 이중 언어

*Commentary*, 355; C. Kingley Barrett, *The Acts of the Apostles*, 306; F. F. Bruce, *Peter, Stephen, James, and John: Studies in Early Non-Pauline Christianity* (Grand Rapids: Eerdmans, 1979), 50; Morcel Simon, *St Stephen and the Hellenists in the Primitive Church*, 6-8.

68) Herodutus, *History*, 3.25; Homer, *Odyssey*, 1.22-4; Strabo, *Geog.*, 1.1.6, 1.2.24; Philostratus, *Vita Apoll.*, 6.1.

69) Ben Witherington III, *The Acts of Apostle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8), 290; F. F. Bruce, “Philip and the Ethiopian,” *JSS* 34 (1989), 380 참조.

적인 상황임을 그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헤파’는 이중 언어 사용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초대 교회 전체의 지도자들로서, 교회의 필요 때문에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 선발되었고 이미 갈릴리에서 번역해서 이중 언어로 전달되던 예수 전승을 잘 이해하였고, 예수와 열두 제자를 이어 예수 전승의 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바울은 이중 언어로 전달되던 예수 전승을 오해나 곡해 없이 전달받았으며 그의 신학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예수에게서 시작된 기독교의 기원은 열두 제자와 ‘헤파’(일곱)를 거쳐 바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으므로 바울의 기독교 기원은 예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 5. 결론

많은 학자들은 오랫동안 바우르와 종교 사학파의 입장에서 예수와 바울, 베드로의 기독교와 바울의 기독교, 아람어 기독교와 헬라어 기독교, 유대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로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초기 분파 이론의 전제가 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언어 차이에 근거한다. 그 결과 종교 사학파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주목하고, 안디옥 번역 가설에 근거하여 이방인 기독교가 팔레스타인 기독교와 큰 연관성이 없는, 바울이 창시한 바울 종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엘은 초기 분파 이론에는 동의하지만, 주 후 1세기 팔레스타인이 헬레니즘화되었고,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전승의 주요한 내용들과 중요한 용어들이 번역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리는 데 성공하였다. 그럼에도 만약 행엘의 주장처럼, 주 후 1세기 팔레스타인이 헬레니즘화되어 있었고, 이중 언어 사용자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면,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예루살렘 번역 가설은 오히려 일관성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유대-팔레

스타인의 이중 언어 상황은 예수 전승이 오히려 갈릴리에서 예수가 사역할 당시에 이미 번역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대-팔레스타인의 이중 언어는 예수 전승이 예수 사역 당시에 갈릴리에서 이미 동시 번역되었음을 보여준다.

갈릴리 동시 번역 가설은 예수 전승의 전달과 관련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예수 전승이 갈릴리에서 이미 헬라어와 아람어로 번역되어 전파되었고, 헬라어 전승과 아람어 전승이 둘 다 갈릴리에서 예수 사역 당시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수가 말한 아람어 전승은 헬라어를 모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었고, 그 번역된 헬라어 전승이 아람어를 모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시 아람어로 번역되어 전달되었을 것이다. 갈릴리에서 예수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이미 헬라어 전승과 아람어 전승이 동시에 전달되고 있었다.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헬라어로 된 예수 전승은 아람어를 모 언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아람어로 재번역되었고, 아람어 전승은 헬라어를 모 언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헬라어로 재번역되었다.<sup>70)</sup>

---

70) 갈릴리 번역 가설은 예수 전승의 전달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이 부분도 이상일, “예수 전승과 복음서 전승의 이중 언어적 전달-1세기 팔레스타인과 안디옥의 경우”에서 제시한 결론이지만, 중요하므로 그대로 인용하고자 한다. “예수 전승이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단일 방향으로 전달되었다는 예수 전승의 언어적 단일 방향성 가설은 주 후 1세기의 로마 제국을 단일 언어 모델로 본 결과로 나타난 가설이다. 그러나 최근에 고고학적인 증거들은 주 후 1세기 로마 제국은 이중 언어 사용 지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예수 전승과 복음서 전승과 깊은 관련이 있는 안디옥과 예루살렘이 이중 언어 사용 지역이었음을 고고학적 증거들은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예수 전승과 복음서 전승은 이중 언어 모델로 이해해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복음서가 비평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이래, 많은 학자들은 예수 전승과 복음서 전승에서 아람어나 아람어적 특징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왔다. 그 이유는 아람어나 아람어적 특징을 가진 전승이 헬라어나 헬라어적 특징을 가진 전승보다 이른 전승으로, 역사적 예수에 보다 가까운 전승으로, 자료 비평, 본문 비평적으로 볼 때보다 원문에 가까운 전승으로, 전승 형성의 기독교 집단(유대-팔레스타인 기독교 교회인지 헬라 지역의 기독교 교회인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마가복음 우선설의 근거

종교 사학과와 행엘은 사도행전 6장을 초기 기독교의 기원과 관련 하여 아주 중요한 자료로 취급하면서 바우르의 초기 분파 이론을 따랐다. 그러나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예수 전승은 이미 두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언어 분리 현상이나 예수 전승이 번역상의 오류로 ‘헬레니스타이’에게 잘못 전달되었을 가능성은 아주 적다. 거의 대부분의 예수 전승은 번역상의 오류나 헬라 사상에서 혼합적인 발전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또한 예수-열두 제자-일곱의 계보는 예수 전승이 ‘헵타’까지 잘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튀빙겐 학파의 근간이 되며, 구 종교 사학과와 신 종교 사학과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초기 분파 이론은 언어학적인 근거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예수의 종교와 바울의 종교, 베드로의 기독교와 바울의 기독교, 유대-팔레스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차이를 언어 문제로 나누는 것은 주 전, 후 1세기의 이중 언어적 상황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누가는 일곱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전체의 지도자로서 예수와 열두 제자의 계승자로서 예수 전승을 충실히 전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에게서 시작한 예수 운동은 열두 제자와 ‘헵타’(일곱)를 거쳐서 바울에게 왜곡이나 손상 없이 전달되었으므로 이방인 기독교, 즉 바울 종교의 기원은 예수에게서 비롯되었다.

---

중의 하나로, 저기독론(low christology) 전승 특징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중 언어 모델을 통해서 볼 때, 아람어나 아람어의 특징을 가진 전승이 반드시 이른 전승인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그 아람어 전승이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재번역된 것일 수도 있고, 팔레스타인에서 헬라어 전승이 아람어로 재번역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헬라어나 헬라어적인 특징을 가진 전승이 반드시 늦은 전승인 것은 아니다. 그 헬라어 전승이 갈릴리에서 그날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일 수도 있고, 재번역된 아람어 전승의 재번역일 수도 있다.”

<주요어>

예수 전승, 이중 언어, 히브리파와 헬라파, 일곱, 초기 분파 이론

<Key Words>

Jesus tradition, bilingualism, the Hebrews and the Hellenists, the Seven, Early schism theory

\* 접수일 2010년 8월 27일, 수정일 2010년 8월 28일, 게재 확정일 2010년 9월 15일

### 참고문헌

- 이상일, “예수 전승과 복음서 전승의 이중언어적 전달-1세기 팔레스타인과 안디옥의 경우,” 「신약논단」 17:2 (2010), 257-294.
- Adams, James, “Bilingualism at Delos,” James Adams, Mark Janse, and Simon Swain, eds., *Bilingualism in Ancient Society: Language Contact and the Written 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103-127.
- Adams, James, *Bilingualism and Latin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Barrett, C. Kingley, *The Acts of the Apostles*, ICC, Edinburgh: T&T Clark, 1994-1998.
- Baslez, M.-F., “The Bilingualism of the Phoenicians in the Ancient Greek World,” A.-F. Christidis, ed., *A History of Ancient Greek: From the Beginnings to Late Antiqu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911-923.
- Baur, Ferdinand C., *Paul, the Apostle of Jesus Christ, His Life and Work, His Epistles and Doctrine: A Contribution to a Critical History of Primitive Christianity* 2, London: Williams & Norgate, 1873.
- Bengel, Johann, *Gnomon of the New Testament* 5, Edinburgh: T&T Clark, 1859.
- Bousset, Wilhelm, *Die Offenbarung Johannes*, 6th e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0; org. ed. 1906.
- Brock, Sebastian, “Greek and Syriac in Late Antique Syria,” Alan Bowman and Greg Woolf, eds., *Literacy and Power in the Ancient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149-160.
- Bruce, F. F., “Philip and the Ethiopian,” *JSS* 34 (1989), 377-387.
- Bruce, F. F.,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Acts*, NLCNT,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65.
- Bruce, F. F., *Paul: Apostle of the Free Spirit*, Exeter: Paternoster, 1979.
- Bruce, F. F., *Peter, Stephen, James, and John: Studies in Early Non-Pauline Christianity*, Grand Rapids: Eerdmans, 1979.
- Bultmann, Rudolf, *Jesus and the Word*, London: Ivor Nicholson & Watson,

1935.

- Bultmann, Rudolf, “Die Bedeutung der neuerschlossenen mandäischen und manichäischen Quellen für das Verständnis des Johannesevangeliums,” *ZNW* 24 (1925).
- Butcher, Kevin, *Roman Syria and the Near East*, London: The British Museum Press, 2003.
- Conzelmann, Hans, *Acts of the Apostles: A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1987.
- Crowe, Jerome, *From Jerusalem to Antioch: the Gospel across Culture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7.
- Dibelius, Martin, *From Tradition to Gospel*, London: Ivor Niholson & Watson, 1934.
- Dibelius, Martin, *Jesu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49.
- Diebold, A. R., “Incipient Bilingualism,” *Language* 37 (1961), 97-112.
- Dinkler, E. ed., *Exegetica: Aufsätze zur Erforschung des Neuen Testaments*, Tübingen: Mohr, 1967.
- Downey, Granville, “Caesarea and the Christian Church,” Charles Fritsch, ed., *Studies in the History of Caesarea Maritima*, BASORSup 19, Missoula: Scholars, 1975.
- Drijvers, Han, *East of Antioch: Studies in Early Syriac Christianity*, London: Variorum, 1984.
- Droysen, Johann, *Geschichte des Hellenismus* 3, Hamburg: Gotha, 1836-1843.
- Fitzmyer, Joseph, *The Acts of the Apostl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1, New York: Doubleday, 1998.
- Goulder, Michael, *St. Paul Versus St. Peter: A Tale of Two Missions*, Louisville: WJK, 1994.
- Green, Peter, *Alexander to Actium: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 Hellenistic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 Grushevoi, Alexander, “The Tribe ‘Ubaishat in Safaitic Nabataean and Greek Inscriptions,” *BAS* 33 (1985), 51-54.
- Gzella, Holger, “Die Palmyrener in der griechisch-römischen Welt: Kulturelle

- Begegnung im Spiegel des Sprachkontaktes,” *Klio* 87:2 (2005), 445-458.
- Haenchen, Ernst, *The Acts of the Apostles*, Oxford: Basil Blackwell, 1971.
- Heitmüller, Wilhelm, “Zum Problem Paulus und Jesus,” *ZNW* 13 (1912), 333-334.
- Hengel, Martin and Anna Schwemer, *Paul Between Damascus and Antioch: The Unknown Years*, London: SCM, 1997.
- Hengel, Martin, *Earliest Christianity*, London: SCM, 1986.
- Hengel, Martin, “Eye-witness Memory and the Writing of the Gospels: Form Criticism, Community Tradition and the Authority of the Authors,” Marcus Bockmuehl and Donald Hagner, eds., *The Written Gosp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Hengel, Martin, “Judaism and Hellenism Revisited,” John Collins and Gregory Sterling, eds., *Hellenism in the Land of Israel*,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1, 6-37.
- Hengel, Martin, *Between Jesus and Paul: Studies in the Earliest History of Christianity*, London: SCM, 1983.
- Hengel, Martin, *Judaism and Hellenism: Studies in Their Encounter in Palestine During the Early Hellenistic Period*, London: SCM, 1974.
- Hengel, Martin, *The ‘Hellenization’ of Judaea in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London: SCM, 1989.
- Hengel, Martin, *The Pre-Christian Paul*, London: SCM, 1991.
- Hill, Craig, *Hellenists and Hebrews: Reappraising Division Within the Earliest Church*, Minneapolis: Fortress, 1992.
- Hitti, Philip Khuri, *History of Syria: Including Lebanon and Palestine*, London: Macmillan, 1951.
- Janse, Mark, “Aspects of Bilingualism in the History of the Greek,” James Adams, Mark Janse, and Simon Swain, eds., *Bilingualism in Ancient Society: Language Contact and the Written 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332-390.
- Jones, A. H. M., *The Greek City from Alexander to Justinian*, Oxford: Clarendon,

1940.

- Kaizer, Ted, "Religious Mentality in Palmyrene Documents," *Klio* 86:1 (2004), 165-184.
- Kaizer, Ted, *The Religious Life of Palmyra: A Study of the Social Patterns of Worship in the Roman Period*, OeO, SKN4, Stuttgart: Franz Steiner, 2002.
- Kilpatrick, George, "Dura-Europos: The Parchments and the Papyri," *GRBS* 5 (1964), 215-225.
- Lee, Sangil, *The Origins of Jesus and Gospel Traditions: Interdirectionality of Transmission of Jesus and Gospel Traditions in Bilingual Contexts*, BZNBW, Berlin/New York: de Gruyter, forthcoming.
- Levine, Lee, *Caesarea under Roman Rule*, Leiden: Brill, 1975.
- Levine, Lee, *Judaism and Hellenism in Antiquity: Conflict or Confluence?*,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8.
- Lewis, Naphtali, *Greeks in Ptolemaic Egypt: Case Studies in the Social History of the Hellenistic World*, Oxford: Clarendon Press, 2001.
- Liebermann, Saul, *Greek in Jewish Palestine: Studies in the Life and Manners of Jewish Palestine in the II-IV Centuries C.E.*, New York: Philipp Feldheim, 1965.
- Mack, Burton, *A Myth of Innocence: Mark and Christian Origins*, Philadelphia: Fortress, 1988.
- Marshall, Howard, *The Acts of the Apostles*, TNTC, Grand Rapids: Eerdmans, 1980.
- McCullough, Stewart, *A Short History of Syriac Christianity to the Rise of Islam*, Chico: Scholars, 1982.
- Millar, Fergus, "Empire, Community and Culture in the Roman Near East: Greeks, Syrians, Jews and Arabs," *JJS* 38 (1987), 143-164.
- Millar, Fergus, "Paul of Samosata, Zenobia, and Aurelian: The Church, Local Culture, and Political Allegiance," *JRS* 61 (1971), 10-17.
- Millar, Fergus, *The Roman Near East 31 BC-AD 337*,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 Moule, C. F. D., "Once More, Who Were the Hellenists?" *ExpTim* 60

- (1958-1959), 100-102.
- Munck, Johannes, *The Acts of the Apostles*, AB 31, New York: Doubleday, 1967.
- Murray, Robert, "Jews, Hebrews, and Christians: Some Needed Distinctions," *NovT* 24 (1982), 194-208.
- O'Connor, D., *Ancient Nubia: Egypt's Rival in Africa*, Philadelphia: The University of Museum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 Pearce, Sarah, "Flavius Josephus as Interpreter of Biblical Law: The Council of Seven and the Levitical Servants in Jewish Antiquities 4.214," *HeyJ* 36 (1995), 477-492.
- Penner, Tod, *In Praise of Christian Origins: Stephen and the Hellenists in Lukan Apologetic Historiography*, ESEC 10, London: T&T Clark, 2004.
- Plummer, Alfred, *The Gospel According to S. Luke*, ICC, 5th ed., Edinburgh: T&T Clark, 1922.
- Roberts, Alexander, *Greek the Language of Christ and his Apostles*, London: Longmans, 1888.
- Sartre, Maurice, *The Middle East Under Rome*, Catherine Porter, Elizabeth Rawlings, and Jeannine Routier-Pucci, trans., Cambridge: Belknap, 2005.
- Simon, Marcel, *St Stephen and the Hellenists in the Primitive Church*, London: Longmans, 1958.
- Spolsky, Bernard, "Triglossia and Literacy in Jewish Palestine of the First Century," *IJSL* 42 (1983), 95-110.
- Stark, Rodney, *The Rise of Christianity: A Sociologist Reconsiders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 Taylor, David, "Bilingualism and Diglossia in Late Antique Syria and Mesopotamia," James Adams, Mark Janse, and Simon Swain, eds., *Bilingualism in Ancient Society: Language Contact and the Written 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Van der Horst, Pieter, "Greek in Jewish Palestine in Light of Jewish Epigraphy," John Collins and Gregory Sterling, eds., *Hellenism in the Land of Israel*,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1.

Welles, Bradford, Robert O. Fink, and J. Frank Gilliam, eds., *The Excavations at Dura-Europos, Conducted by Yale University and the French Academy of Inscriptions and Letters. Final Report V, Part I. The Parchments and Papyri*,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9.

Witherington, Ben, III, *The Acts of Apostle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8.

Zeller, Dieter, "New Testament Christology in its Hellenistic Reception," *NTS* 46 (2001), 312-333.

Herodotus, *History*, <http://www.perseus.tufts.edu>

Homer, *Odyssey*, <http://www.perseus.tufts.edu>

Strabo, *Geography*, <http://www.perseus.tufts.edu>

Philostratus, *Vita Apoll.*, <http://www.perseus.tufts.edu>

<초록>

##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히브리파, 헬라파와 초기 기독교의 기원

-종교 사학과와 마르틴 행엘의 초기 분파 이론 재고-

이상일

(총신대 신대원 강사)

종교 사학과는 초기 분파 이론에 근거하여 안디옥에서 이방인 기독교가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예수 전승이 이중 언어 사용 도시인 안디옥에서 번역된 곳으로 보고, 시리아에 대한 연구가 초기 기독교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틴 행엘은 예수 전승이 안디옥에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이중 언어 사용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 번역되었다고 제안하였다. 행엘은 아람어를 말하는 ‘헤브라이오이’(Εβραίοι)를 아람어를 말하고 헬라어를 조금 하는 팔레스타인 유대 기독교인으로 보고, ‘헬레니스타이’(Ελληνισταί)와 ‘헵타’(Επτα)는 헬라어만 말하는 헬레니스틱 유대 기독교인 간주하였다. 단일 언어적, 지리적, 인종적, 구분을 하였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 내에 있었던 ‘헬레니스타이’와 ‘헵타’가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되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기독교로 성장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헤브라이오이’와 ‘헬레니스타이’는 단일 언어적인 명칭이 아니라, 이중 언어적인 명칭인 듯 보인다. 즉, ‘헤브라이오이’는 아람어를 모 언어로 다른 언어를 간 언어로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가리키고,

‘헬레니스타이’는 헬라어를 모 언어로 하고 다른 언어를 간 언어로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말한다. 왜냐하면 헬라-로마 시대의 근동은 이중 언어 사용 지역이었다는 것이 비명, 파피루스, 인구지리학적 증거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전승은 안디옥에서 번역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 번역이 시작된 것도 아니다. 예수 전승은 갈릴리에서 번역이 시작되었다.

또한 ‘헤파타’도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이중 언어 사용 공동체라면, 그들이 지도자를 뽑을 때도 이중 언어 사용자들을 뽑았을 것이다. 누가는 ‘헤파타’를 ‘헬레니스타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초대 교회 전체의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다. 누가는 ‘도데카’(δώδεκα)와 ‘헤파타’를 병치시킨다. 그리고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령하고 약속한 것이 일곱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어 예수-열두 제자-일곱이라는 지도자 계보를 제시한다. 그래서 ‘헤파타’는 ‘헬레니스타이’와 함께 예수 전승을 공유했고, 초기에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헬라-로마 시대의 근동 아시아의 이중 언어적 상황은 예수 전승이 갈릴리에서 이미 번역되었음을 지지한다. 이중 언어적 상황은 일곱은 열두들과 함께 초대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초기 분파 이론은 언어학적으로 볼 때 설득력이 없다. 또한 그 지역의 이중 언어는 예수 전승이 갈릴리에서부터 번역이 시작되었고, 열두 제자를 거쳐 헬라어를 모 언어로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무리 없이 잘 전달되었음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측면에서 예수와 바울, 베드로의 기독교와 바울의 기독교, 아람어를 말하는 팔레스타인 기독교와 헬라어를 말하는 헬라적 기독교, 유대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 사이에 날카로운 대립을 찾기는 힘들다. 이중 언어로 된 예수 전승은 열두 제자와 일곱 지도자를 거쳐 바울에게 언어 왜곡 없이 전달되었다.

<Abstract>

**The ‘Hebrews’ and the ‘Hellenists’ in the  
Jerusalem church and the Origin of the Early  
Christianity: Reconsideration of Early Schism Theory of  
the religionsgeschichtliche Schule and Martin Hengel**

Part-Time Lecturer, Sang-Il Lee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On the basis of the early schism theory the *religionsgeschichtliche Schule* has suggested that Gentile Christianity started from Antioch apart from Jewish Christianity. They considered that Antioch was a very significant region related to the beginning of the earliest Christianity because Jesus tradition was translated at Antioch where was bilingual. However, Martin Hengel has held that the translation of Jesus tradition did not start from Antioch but from the Earliest Christian church in Jerusalem. In relation to this, he thinks that Ἑβραῖοι refer to Aramaic-speaking Palestinian Jewish Christians whereas Ἑλληνισταί and ἑπτά were Hellenistic Jewish Christians who spoke only Greek. He makes a monolingual, geographical, and ethnic distinction between Ἑβραῖοι and Ἑλληνισταί.

However, the Graeco-Roman Near East including Judaeo-Palestine was bilingual. This is approved by inscriptions, papyrus, and population geographical evidence. This means that translation of the Jesus tradition started from Galilee during Jesus' ministry, not from Antioch or Jerusalem church. Furthermore, the two terms, Ἑβραῖοι and Ἑλληνισταί, are not monolingual but bilingual designations. That is, Ἑβραῖοι spoke Aramaic as their matrix language and other language as their

embedded language and Ἑλληνισταί spoke Greek as their matrix language and other language as their embedded language.

Also, it seems that ἑπτὰ were bilinguals. If Jerusalem Christian community was bilingual, the church members tried to choose bilinguals as their community leaders. As a result, Luke describes ἑπτὰ as leaders of the whole Jerusalem community. He parallels ἑπτὰ with δώδεκα. Luke also insinuates that Jesus' promise given to δώδεκα is fulfilled by the ἑπτὰ and commandment given to δώδεκα was performed by the ἑπτὰ. This indicates that Luke stresses the line-up of Jesus - δώδεκα - ἑπτὰ. Hence, there was not early schism between Ἑβραῖοι and Ἑλληνισταί and between δώδεκα and ἑπτὰ.

Accordingly, the bilingualism of Graeco-Roman Near East supports that Jesus tradition was translated during Jesus' ministry but undermines the early schism theory. Furthermore, it is hard to find a sharp distinction between Jesus and Paul, Petrine Christianity and Pauline Christianity, Aramaic-speaking Palestinian Christianity and Greek-speaking Hellenistic Christianity, and Jewish Christianity and Gentile Christianity from the perspective of monolingualism because bilingual Jesus tradition was delivered to Paul through the Twelve and the Seven.

